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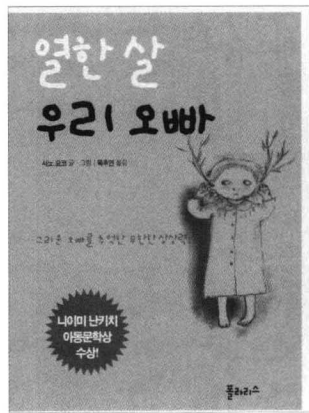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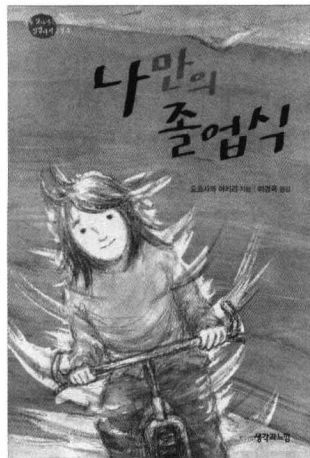
## 너 꾀병부리는 거지?

1학년 최남식

단편소설 **너 꾀병부리는 거지?** (김민서 지음, 도서출판 풀잎)

교과서 냄새만 맡아도 구토를 합니다. 학교나 교실, 체육관만 떠올려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학교 우울증에 빠진 유키에게 특별한 선생님이 찾아온다는 사연. 언뜻 <죽은 시인의 사회>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심리를 좇는 몇 대목들을 눈여겨보니 결코 식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나마 단짠이라고 부르는 네 명 중 한 친구가 하루라도 결석을 하면 금세 아이들은 다른 친구를 만나 그 한 명을 왕따시킵니다. 아이는 그제야 고백하죠.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는 모두 자신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마음 돌 곳 없이 방황을 거듭하는 아이들 모습은 한없이 침울하고 지나치게 조숙합니다. 학교 우울증에 빠진 아이에게 “너 꾀병 부리는 거지?”란 말을 했던 걸 새삼 반성하게 하는 이야기.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제안하는 선생님에게 치료법을 전수받아보세요.



## 쌍둥이 같은 남매 이야기, 숨은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1학년 최남식

서노 로코를 그림, 최지영 작곡, 풀잎출판사 112쪽 900원

쌍둥이 같은 남매의 사연. 여자 아이는 시종일관 독백을 합니다. 평범치 않은 독백입니다. 마치 죽은 오빠를 향한 진혼곡처럼 들리거든요. 아이가 말한 비를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그 심연의 의미를 읽어낼 때 이 책만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흥역에 걸려 병원에 들어간 오빠를 바라보며 “부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걸로 내뱉는 말과는 달리 아이는 오빠와의 물리적 거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 거리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내가 병에 걸린 건지, 오빠가 병에 걸린 건지...”라는 대목에선 오빠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아이의 심리가 전해집니다. 두 아이가 아담과 이브처럼 나체로 오줌을 싸는 대목은 마치 원시시대 풍경화 같습니다. 표정은 물론이요 행동까지 조금은 낯선 두 아이, 드러난 의미 말고 숨은 의미를 발견하려 애쓰면서 이 독특한 남매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 짐작해 보세요.

## 풍경은 내 마음 안에도 있어

1학년 최남식

단편소설 **아름다운 풍경화에 뭐가 숨어 있을까** (이연승 지음, 도서출판 풀잎)

미술평론가 이주현 씨가 깊이 있는 풍경화 감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씨가 마련한 미술관은 눈으로 훑어보고 대충 지나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화가들이 상상하거나 그만의 시각과 마음으로 그려낸 그림도 풍경화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읽는 풍경’이란 제목의 2장엔 “저것도 풍경화인가?” 할 만큼 낯선 이미지들이 걸려 있습니다. 고흐의 <까미유가 나는 밀밭>에는 세 갈래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할지 망설였던 고흐의 심리이지요. 우리작가 고명근 씨는 바다라는 수면풍경에 수면 위와 아래를 잇는 계단을 놓습니다. 바로 보면 풍경이지만 옆으로 보면 소녀의 얼굴이 되는 매우 독특한 작품도 인상적입니다. 실제처럼 표현한 그림만이 풍경화는 아닙니다. 언뜻 추상화처럼 보이는 그림도 내 안에 들어와 하나의 풍경 이미지를 완성하면 그것도 풍경화가 될 수 있답니다. 대충 훑어보지 말고 보고 또 보면서 그림과 내가 만나는 그 지점에 오랫동안 머물러 보세요.



## 사랑받은 곰은 뭔가 달라

1학년 최남식

가장 사랑받는 곰인형 (이연승 지음, 풀잎출판사 90쪽 900원)

팀에게 곰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런 까닭에 곰인형의 코는 뽀뽀로 인해 다 헐어버리고, 귀는 아이스크림이 묻어 더러워졌습니다. 심지어 팀은 곰이 아플까봐 붕대까지 감아줍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구박을 받은 줄 알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인형 선발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팀 스스로도 자신의 곰은 너무 지저분하고 초라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심사위원들은 곰만 보고도 주인인 팀의 마음을 꿰뚫어봅니다. “누구한테 맞아서 저런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너무 사랑을 해줬나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같은 모습도 다르게 바라볼 줄 아는 눈에 대해 이야기하는 짧은 철학책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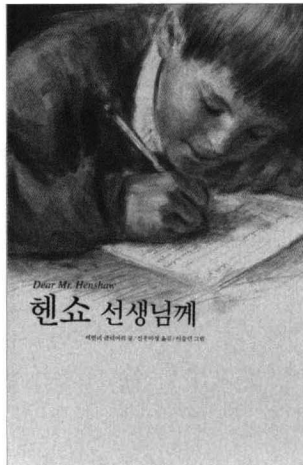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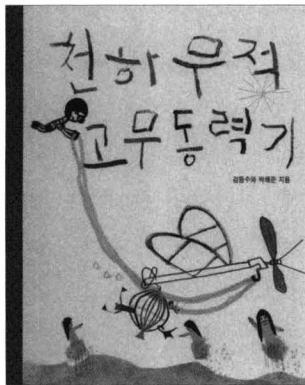
## 엄마 없는 날에는요

천하무적 고무동력기  
김종우·박계준 지음 보림 22쪽 값 9,000원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없는 게 제일 싫어!”

엄마 없는 날 고무동력기를 사갔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라니요? 책을 펼치는 순간 코끝이 찡해져옵니다. 근데 동심은 금세 놀이로서 슬픔과 외로움을 떨쳐버립니다. 자신만의 창의력으로 동력기를 만들어 보고 곧 불꽃이 펄펄 터지는 밤하늘을 날아보는 경험을 하지요. 근데 곧 물귀신을 만나 한판 대결을 벌여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 내면의 외로움, 두려움과 잘 싸워야 한다는 의미로 읽히는군요.

자! 험난한 관문을 뚫었으니 이제 다시 시끌벅적 즐거운 시간인가요? 대답은 No! “엄마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할 이야기 진짜 많은데”란 아이의 독백에서 독자들은 또 한 번 코끝이 찡해집니다.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게 만드는 이야기. 소설적인 플롯을 그림책 안에 펼쳐놓은 재기발랄함이 느껴집니다.



## 글쓰기, 치유의 과정입니다

《헨쇼 선생님께》  
비벌리 클리어리 글 신우미정 옮김 이승민 그림 보림 152쪽 값 8,000원

글만큼 정직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지 못한 마음 속 이야기를 나 자신에게 일기로, 타인에게 편지로 적어 보내곤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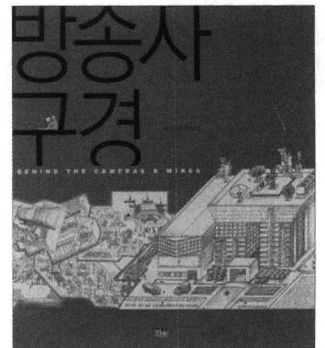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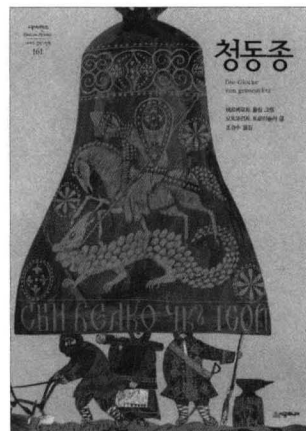
리 보츠는 동화 작가 보이드 헨쇼 씨에게 궁금한 것들을 잔뜩 적어 보냈다가 오히려 열 가지 질문이 담긴 답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헨쇼 선생님께 편지를 쓰듯이 쓰는 일기로 글을 써내려가지요. 아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낯선 학교생활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아 있습니다. 작가는 철저히 아이의 시선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느끼는 불만들을 고백합니다. 도시락 도둑 때문에 짜증이 난다고 말할 땐 영락없는 어린애지만 애정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아빠에게 불만을 말하는 대목에선 조숙함과 진지함이 묻어 납니다. 아이가 낯선 분위기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눈여겨본다면 웬만한 심리 논문 한 편 정도는 나오겠습니다.

## 행운의 종소리, 욕심 많은 이는 못 들어!

청동종  
헤르베르트 훔칭 그림 오토 프리트 프로이슬러 글 조경수 옮김 시공주니어 28쪽 값 8,000원

나만 아는 이기적인 황제와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며 살자는 착한 농부 이반의 이야기. 언뜻 봤을 때 권선징악형 옛날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열린 결말을 제시해 독자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성실한 농부 이반은 밭을 갈다가 청동종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종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근심, 질병과 가난,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는 종. 욕심 많은 황제가 이 사연을 듣고 가만있지 않지요. 그러나 종은 저만 잘 먹고 살겠다는 이에게 행운을 주지 않습니다. 착한 이반의 손으로 다시 돌아간 종은 조각조각 깨져 있지만 작은 청동종으로 나뉘지고 이반은 이웃에게 이를 나누어줍니다. 그렇다면 황제는요? 작가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독자의 상상에 맡깁니다. 러시아 전통 그림을 통해 당시 풍속사를 엿보는 공부도 해보세요.



## 방송 한편,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군요

《방송사구경》  
장태연 글·그림 한울 56쪽 값 12,000원

색색의 조명을 받아가며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 PD의 사인을 받고 오늘의 방송대본을 읽는 DJ가 있는 방송국!

방송사 프로듀서가 방송사 구성구석을 상세히 그려놓고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야외 분장버스 프로그램 안내 게시판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바쁘게 뛰며 땀을 흘리는지 실감이 되지요. 기계들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옥상에 놓인 위성용 안테나, 송수신용 마이크로웨이브 안테나는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고장 나지 않습니다. 출입 시 염두에 둘 사항도 있어요. 드라마 스튜디오에 들어갈 때 구두를 신었다면 걸음걸이를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24년 경력의 프로듀서는 방송용 헬리콥터 내부까지 자세히 소개하면서 현장감 넘치는 방송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읽고나면 우리가 선망하는 프로듀서, 방송작가란 직업이 결코 만만찮은 일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김청연 기자